

성장 28회·경제 15회 언급... '실용주의'로 중도층 꺼안기

이재명 국회 연설... '기본사회+성장' 산업별 구체적 청사진 제시 '수권정당' 면모 부각... 헌정 파괴 맞서 '헌정수호연대' 구성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조기대선을 겨냥한 '중도 꺼안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으로 경제까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본인의 공약인 기본사회와 성장을 결합해 '먹사니즘'을 뛰어넘는 '잘사니즘'을 구현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용주의를 앞세운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하면서 '먹사니즘' 대신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했다. 사회·경제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성장만 강조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성장'이 28번 언급됐고, '경제'는 15차례 나왔다. 또 구체적인 산업별 전략도 내놓았다는 점에서 조기 대선을 위한 대선 공약의 밑그림도 엿볼 수 있었다.

이 대표는 A부터 F까지 알파벳 철자를 머리글자로 한 성장전략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Bio)·문화 콘텐츠(Contents & Culture)·방위산업(Defense)·에

너지(Energy)·제조업 부활(Factory)이 그것이다. AI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을 언급하며 "AI 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기존에 밝힌 정책공약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이처럼 사실상 대선 공약이라고 봐도 좋을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내놓은 것은 '준비된 지도자' 혹은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아닌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한 상황에서 서둘러 구체적 청사진으로 중도층을 선점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국회의원소환제, 여야가 충분히 의논할 사안"

'주52시간 예외'·우량기업 육성 등 비판... 이재명 국회연설 맹공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잘사니즘이 아닌 뺄사니즘"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줄 바란다. 우물쭈물도 좋으니 '우항우' 깡뻑이를 켜다면 계속 우측으로 달려 달라"면서 이 대표가 언급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선 "여야가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 놓고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해서 나와야 하는 의견 중 하나"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 연설을 두고 "소셜 '1984'를 보면 선전·선동하는 부처 이름이 진실부고, 고문하는 부처 이름이 애정부다. 그런

생각이 얼핏 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거론한 연금개혁에 대해선 "우리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며 "우리는 (소득대체율) 42%를 주장하는데, 진실이 아닌 얘기를 기반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대표의 '우물쭈물' 행보를 겨냥한 공세가 이어졌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 "결국 핵심 사안도 모르는 채 당내 설득도 없이 이 대표 혼자서 말로만 우물쭈물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또 한 편이 대국민 사기극"이라

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52시간 예외조항 하나에도 우원좌왕해놓고 5년 내 3% 경제 성장 달성, 삼성전 자급 기업 6개 육성 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는데 누가 믿겠느냐"며 "이 대표의 실용주의는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의 부도수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성장 정책을 공개하며 삼성전 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적하는 허언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기업을 외치면서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 먹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대기업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차단 '갑질 방지'

김원이 "중·소기업에 협의요청권 부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대기업의 일방적 단가인하 통보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전 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불공정행위 세부유형으로 68.6%(70곳)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55.9%)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계약 시 상대측에 대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응하지 않을 시 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대기업 갑질'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문 전 대통령 찾아 시국 논의

대선 앞두고 보폭 넓히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시국에 대해 논의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님 내

외분을 만났다. 대단히 건강한 모습이셨고 반갑게 맞아주셨다"고 썼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의 말을 경청해주셔서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며 "저의 근황을 잘 아시고 먼저 관심 표명하시며 격려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께서 격려 말씀으로 민주당에

다양한 세력과 스펙트럼이 필요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힘을 합치고 지지 기반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저도 민주 세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도록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은 대선 예비 주자로서 보폭 넓히기로 해석된다.

/김지사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정량성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농도부하 감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청정!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